

‘초등과학영재의 판별과 선발’에 관한 토론

정 병 훈(청주교대과학영재교육센터)

초등영재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은 영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연구소 등 여러 교육기관에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발표에서 제시된 선발에 관한 문제점들도 선발을 실제로 겪어본 기관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선발 방식은 추천 → 시험 → 검사 → 면접의 과정을 거치는 전형적인 다단계 선발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재아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자의 내용으로부터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 사항과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가. 학교 선발에서

1. 학교에서 추천할 때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 선발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검사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 영재아 행동 특성 평가 척도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3. 과학부장 및 학교장 의견은 정성적 서술인가 아니면 어떤 정량화된 기준이 있는가?

나. 교육청 선발에서

1. 학업 성취도 검사는 어느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가, 아니면 교육과정 밖에서도 출제되는가?
2. 면접 검사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면접 검사의

문항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선발 시기는 모든 센터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이동을 막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 역시 5학년을 갓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도 4학년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데, 과학의 경우 과학교과가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출제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학은 수학과 달리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은 인지적 능력 이외에도 이론과 내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서

1. 영재학회에서 기본적인 몇 개의 영재아 검사지들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천하고 과학재단에서 공급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검사지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기초 조사에 대한 자료가 누적되어야 통계적인 동향을 아는데 필요합니다. 또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재아 판별도구를 영재학회에서 추천하고 과학재단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특히 초등학생들은 사고력과 지적 능력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단지 선발된 학생들이 영재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에 적지 않은 교육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한 후 1년 단위로 전체 학생들을 계속 재선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학생 선발시 과학의 경우 실기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조작적 능력이나 탐구 설계 능력, 알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실기 평가가 필요한데, 문항 출제와 관리, 평가 기준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에서 보여준 노력과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교육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